

투데이 칼럼

정읍시 문화관광 시설 T자 선형 도심 공간에 집중해야

인구 변화에 맞춘 도시기본 계획은 도시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생활권이 비슷한 시군구 행정구역의 통폐합이 없다면 향후 10년 안에 정읍시 인구는 10만 명을 밑돌고, 그중 50% 이상이 65세가 넘는 어르신이 주축이 된 도시가 될 것이다.

줄어든 인구와 노령화된 도시에 맞는 도시기본계획의 핵심은 도시 공간구조를 외연 확장이 아닌 도심 회귀(回歸)의 수축(收縮)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특히 인구감소로 지역 소멸이 예상되는 도시는 인구가 증가할 때처럼 도시의 외연 확장으로 양적 발전을 이루려는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

도시 외연 확장은 도시기반인 도로, 교통, 전기, 수도, 가스 등 시설 비용을 크게 증가시켜 재정을 압박하고 도심과 외곽의 교육, 의료, 상권 등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

이렇게 인구와 늘 때의 도시개발 정책을 답습해 주거지의 외연 확장, 이용자가 거의 없는 문화 및 체육 시설들의 외곽 분산은 도심 공동화와 관리비용 과중으로 지역 소멸을 빠르게 할 것이다.

이제는 도시개발이 지역의 인구와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원도심의 영역을 고루 발전시켜 주거지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것이 도심과 외곽이 공존할 수 있는 정책이다.

특히 관광 분야에서 지역발전의 핵심 거점은 정읍의 역사와 정체성이 살아 있고 문화가 들쭉 뽀 원도심이 중심을 이룬 도심 관광지에 두어야 한다.

원도심 개발을 위해 도심 관광은 탐방 숙박원과 관광제임에서, 문화



정 상 섭

정읍시의회 의원

관광 시설은 고창 모양성 문화단지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

개발 중인 무성사원에 이어 피향정, 초산 성지, 장명동 향교 일원의 한옥과 정음 현청(縣廳), 연지동의 연지(蓮池)의 복원으로 고즈넉한 옛 정취가 짙게 묻어있는 역사적 공간들이 현대인들의 삶에 유용하게 어우러진 도시를 갖추고, 경찰서, 우체국 등 비어지는 공공청사를 근린공원 같은 생활문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 시설들은 평소에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 속 문화공간으로, 관광객들에게는 정음을 알고 정음의 맛과 맛을 느끼는 문화관광 시설로 함께 활용하는 것이다.

그래야 반나절이나 당일치기 관광객도 시내로 유입되고 이들의 소비가 주민소득으로 직접 연계되어 어려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즉 내발적 발전자원을 복원하고 보존 및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아담하지만 지역의 정체성을 잘 살려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짜임새 있는 도시가 사람 살기 좋은 곳이다.

거대시장에 낀 틈새시장이 살아가는 상술(商術) 같은 전략이 정읍시 도시기본계획에도 적용돼야 한다. 그래야 낮은 비용과 적은 노력으로

도 큰 도시와 문화관광 인구 유입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

그것이 도시의 물리적 노후화, 경제적 위축, 인구 유출도 막을 수 있고 예산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

고속도로, SKT, KTX 같은 잘 만들어진 교통망은 전국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축소시켰지만 사실상 대도시에 유리한 국토 공간구조가 됐다.

중소도시는 이 시설의 현명한 활용 없이 상권의 팽대현상과 인구 유출 등으로 치명타가 될 수 있다. 대도시 발전전략의 어설픈 흉내, 지역의 고유성을 살려내지 못한 현원일률적 관광시설만으로는 버거운 투자비, 운영 및 관리비, 지역경제 파급력에서도 대도시를 이길 수 없고 시민들의 정책 수용성도 낮다. 지자체마다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거의 유사한 내용의 관광시설들을 만들어 치열한 경쟁을 하지만, 관광객이 한 곳의 늘면 한 곳이 줄어드는 제로섬 게임이 된 게 현실이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국내 관광객이 일시적 호황이지만 관광 형태가 체류형은 주로 해외 관광이고, 지방 중소도시는 대부분 반나절이나 당일치기 스텝가는 관광이 됐다.

그래서 교통과 정보통신의 발달에 따른 국토 축소 효과와 관광 형태에

맞는 도시기본계획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다.

도시 외곽으로 분산된 문화관광 시설들은 접근성이 떨어지고 초고령 사회의 특이인 노인의 활동범위 축소, 주된 생산과 소비층인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로 운영의 한계를 겪고 있다.

현재 방치되거나 애물단지로 전락한 몇몇 문화관광 시설들이 이를 명백히 입증하고 있다. 도심 관광으로 많은 세의 수입을 거둬 지역발전을 이끄는 지역들의 공통점은 원도심에서 반경 500미터 안에 지역을 대표할 문화관광 랜드마크 시설들이 집중된 특성이 있다고 한다. 인근 고창 모양성, 담양 죽녹원과 관방제림 등 문화관광 시설들이 중소도시의 성공된 도심 공간구조를 실증하고 있다. 정읍의 재정과 인구 여력에 맞는 도시개발을 위해서 정읍시 관광 분야의 도시계획이 정읍현 남부에 위치한 연지동에서 상동에서 이르는 죽림산, 초산, 아양산과 정음현 북부인 성황산에서 수성동으로 이어진 정음현을 중심에 둔 T자 선형의 도심공간 개발에 맞춰져야 한다.

인구가 급격히 줄고 노령층이 많은 곳에서 대도시 개발전략을 흉내 내 어정쩡한 중소도시, 중소도시의 모습을 본뜬 어색한 읍면동 소재지보다는 지역의 정체성을 잘 살린 중소도시와 농축산업에 편리한 농촌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현실성 있는 도심 문화관광 발전 전략이 도심과 외곽 모두가 텅 빈 공공시설, 빈 상가, 빈집 등이 산재한 폐허된 지역을 막는 길이다. 따라서 정읍시 도시기본계획에서 문화 관광 시설을 T자 선형의 도심 공간에 집중해야 한다.

인구가 급격히 줄고 노령층이 많은 곳에서 대도시 개발전략을 흉내 내 어정쩡한 중소도시, 중소도시의 모습을 본뜬 어색한 읍면동 소재지보다는 지역의 정체성을 잘 살린 중소도시와 농축산업에 편리한 농촌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현실성 있는 도심 문화관광 발전 전략이 도심과 외곽 모두가 텅 빈 공공시설, 빈 상가, 빈집 등이 산재한 폐허된 지역을 막는 길이다. 따라서 정읍시 도시기본계획에서 문화 관광 시설을 T자 선형의 도심 공간에 집중해야 한다.

인구가 급격히 줄고 노령층이 많은 곳에서 대도시 개발전략을 흉내 내 어정쩡한 중소도시, 중소도시의 모습을 본뜬 어색한 읍면동 소재지보다는 지역의 정체성을 잘 살린 중소도시와 농축산업에 편리한 농촌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현실성 있는 도심 문화관광 발전 전략이 도심과 외곽 모두가 텅 빈 공공시설, 빈 상가, 빈집 등이 산재한 폐허된 지역을 막는 길이다. 따라서 정읍시 도시기본계획에서 문화 관광 시설을 T자 선형의 도심 공간에 집중해야 한다.

그런 현실성 있는 도심 문화관광 발전 전략이 도심과 외곽 모두가 텅 빈 공공시설, 빈 상가, 빈집 등이 산재한 폐허된 지역을 막는 길이다. 따라서 정읍시 도시기본계획에서 문화 관광 시설을 T자 선형의 도심 공간에 집중해야 한다.

그런 현실성 있는 도심 문화관광 발전 전략이 도심과 외곽 모두가 텅 빈 공공시설, 빈 상가, 빈집 등이 산재한 폐허된 지역을 막는 길이다. 따라서 정읍시 도시기본계획에서 문화 관광 시설을 T자 선형의 도심 공간에 집중해야 한다.

사설

전북 도내 독립운동 현장

전북지역 곳곳에 산재한 자주 독립의 흔적들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도내에는 독립운동 관련 시설이 많다. 임진왜란 정유재란 등 국난 극복의 현장도 매우 많다.

그러나 세월이 갈수록 사라지는 곳이 많다. 문제는 역사 정신이 깃든 곳을 도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전달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사라지는 청소년들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우리 민족의 정신적 상징이 되는 곳을 직접 찾아 행적을 더듬는 일이 필요하다. 일제 강점기 흔적 등을 사진으로 기록한 기획 전시 등도 중요하다. 지역에 남아 있는 일본군 사립물과 독립운동 관련 현장을 직접 접해야 한다.

그 후손들을 취재하고 기록한 작품전도 만나야 한다. 독립운동의 현장을 방치되거나 외면 받는 곳이 여전히 많다. 망각과 외면 그리고 무관심으로 사라져 가는 독립운동 현장을 찾아야 한다.

특히 전시를 통해 어떻게 활용

해야 할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인천시의 경우 을 8.15 광복절을 맞아 지역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와 독립운동 장소를 만나 볼 수 있는 3차원 게임 앱을 구현해 관심을 모았다. 3차원 가상 공간(메타버스Metaverse)을 자유롭게 구현해내는 게임 '버니크 레프트'를 통해 가상 맵 인천크레프트 19.45를 공개했다.

시민들은 직접 이동하지 않고도 손쉽게 지역 독립운동가와 독립운동 장소를 만나볼 수 있다.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젊은 세대의와의 소통을 이어나가기 위해 새로운 시도를 한 것이다.

전북 일원에 산재해 있는 독립운동 현장을 찾아 역사를 배우는 일이 절실하다. 특히 기획 전시는 전북의 역사적 자긍심을 고취하는 일이다. 애국선열들의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자주 독립의 정신을 새기고 기억해야 할 때이다. 전북에서도 독립운동의 역사를 새롭게 체험할 수 있을 기대한다.

민주당 전주시장 후보군

2022년 내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북 도내에서는 광역단체장을 포함해 모두 14개 시·군 단체장을 뽑는다. 이 가운데 전주시장 선거는 가장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전주시장 선거는 벌써부터 뜨겁다. 최대 격전지로 손꼽히고 있다. 민주당에는 후보군이 넘쳐나고 있다. 특히 공직자 출신들이 민주당 문을 적극적으로 노크하고 있다.

전주는 현 전주시장의 3선 불출마로 무주공산(無主空山)이 될 전망이다. 그동안 불발에서 출마 여부를 저울질하던 전주시장 후보들의 무게 중심이 급격히 출마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다자 대결 구도로 변하고 있다. 많은 후보 출마가 예상되는 만큼 여론 조사를 통한 후보 배수 압축 작업이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경선은 2배수 이상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그동안 대부분 23 배

수로 경선이 진행돼 왔다. 민주당 전주시장 후보 선출이 당초 예상과 달리 예측 불허의 상황으로 진행됐다. 이는 모두 후보 배수 압축의 가변성 때문이란 지적이다.

실제 전주시장 후보 배수 압축은 여론 조사만으로 진행됐다. 권리 당원 확보 등 각 선거 캠프 조직력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었다.

내년 지방선거는 3월의 대선 직후에 실시된다. 따라서 대권 주자들의 영향력이 클 것이란 전망이다. 전주시장 선거는 공천 경쟁부터 치열할 것이다.

누가 민주당 공천을 받느냐가 사실상 당선권이 때문이다. 전북은 이미 지난 8월 말과 9월 초에 권리 당원과 대선 선거인단을 모집했다. 물론 권리 당원 모집이 공천 심사의 결정적 요소는 아니다.

전례 없이 냉혹한 공천 심사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전주시장 후보군들은 모두 인지도 확보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비가 꼬마운 아이다 피해 지역 '물 부족' 주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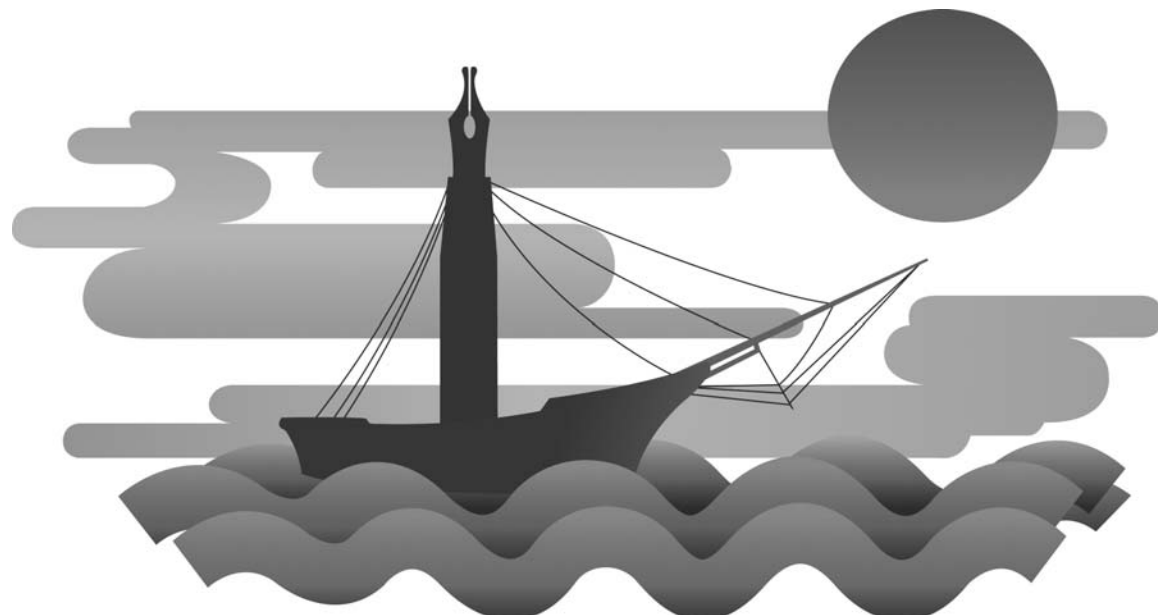


7일(현지시간) 허리케인 아이다가 지나간 후 미 루이지애나주 플라키민스 패리시 카운티에서 한 주민이 내리는 비를 반갑게 맞고 있다.

비트코인 법정통화 반대하는 엘살바도르 시위대



7일(현지시간) 엘살바도르 산벤센테의 범이 고속도로에서 비트코인 법정통화에 반대하는 시위대에 참석한 한 남성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노력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